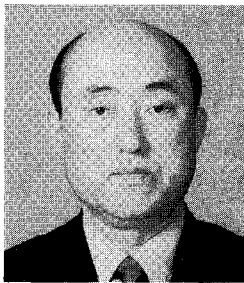


임오년 종계업 결산

# 예견되는 불황, 종계감축사업 재현을 기대하며...



남 광 풍  
(풍전부회장 대표)

**그**년도 우리 축산업계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구제역, 돈콜레라, 뉴캐슬, 가금티푸스 등의 질병과, 지난 여름의 많은 비와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등으로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지방선거 등 큰 행사가 여러번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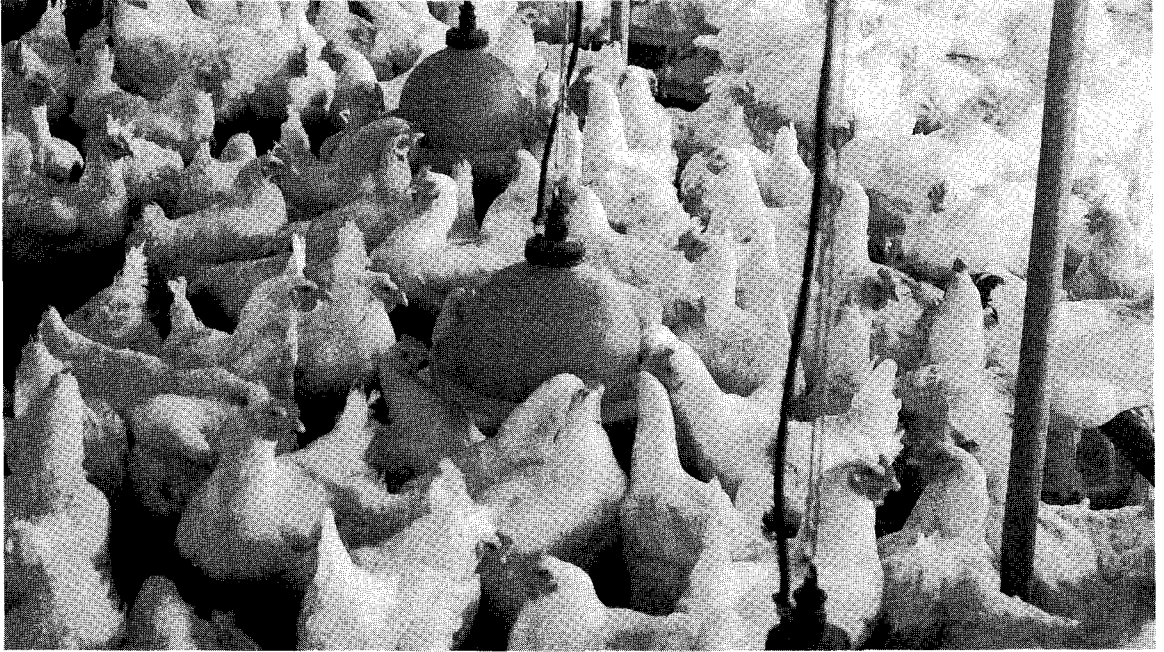
한일월드컵에서는 6월 내내 전국을 기쁨의 함성과 붉은 옷으로 물들인 월드컵은 붉은 악마와 함께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며, 온 국민이 기쁨을 맛본 한달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4강전에서 독일에 패하여 좌절과 허탈함도 맛보았지만, 터키전에서는 비록 게임에서는 졌으나 터키를 위한 응원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10월의 아시안 게임때는 북한의 응원단이 대거 내왕함으로써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정치적으로는 보궐선거, 6.13 지방자치선거를 거쳐 이제 12월 19일의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년도 양계업은 육계산지가격이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kg당 300원까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병아리 가격도 100원 이하로 하락하여 부화업자나 계열사들도 적자폭이 늘어남으로써 심각한 자금압박을 겪기도 하였다.

우리 종계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불황을 조기에 타결하고자 자주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 생산감축만이 살 길이



라고 인식하고, 종란의 식란처분, 병아리의 폐기, 종계의 감축중에서 씨앗인 종계를 도태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따라서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종계 50만수를 도태키로 결정하고, 종계의 도태를 실시한 결과 약 41만수의 종계를 도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종계감축 사업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기대가 컸으며,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좀더 합리적이고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재추진하였으면 한다.

이번 감축사업은 일시적일지라도 닭가격과 병아리가격이 생산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믿는다. 과거에 부화업자들의 모임이었던 부화협회,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등에서 종란이나 병아리를 폐기처분하였을 때도 감축효과로 일시적이거나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 경험이 있었다. 이때에 몇몇 회원들은 감축을 결의하고도 몰래 뒤에서 병아리의 숫자를 늘려 부

당한 이익을 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예를 볼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나 산물의 가격의 상승효과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우매하다고 본다. 생산의 숫자를 줄이면 산물의 생산원가가 올라가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간단한 원리를 쉽게 간과해 버린다. 즉,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숫자를 줄여주거나 남이 잘못되어 덕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은 불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종계를 보유한 농가에서 불화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불황은 모두가 내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 같이 협력하여 사육규모를 감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 2003년에는 금년보다 더 큰 불황이 예상되고 있다.

2002년 6~8월에 사상 유래없는 종계가 분양되었다. 특히, 7월의 경우 580,300수로 전년

7월의 분양수수인 268,200수보다 무려 238.3%가 분양되었으며, 이 숫자는 우리나라 육계산업 사상 최고의 분양수수이다. 이때 분양된 종계가 생산에 가담하는 2003년도 3월 이후에는 불황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럴때 우리는 불황이 오기 전에 미리 불황을 차단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금년도 6~9월에 입식된 종계중에 50만수 정도는 도태되어야 불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4개월간 약 31.1%가 증가된 464,002수가 더 많이 분양되는 것을 근거로 추정하여 본 수수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불황을 우리는 주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양계협회, 계육협회, 원종계장 그리고 농림부가 함

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육계 생산조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현재 농림부 산하에 양계수급조절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생산자들이 참여가 제한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생산자들의 의견이다.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2~3%의 생산증가에도 산물의 가격이 폭락한다는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남의 눈치만 보는 행동보다 우리 서로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본다. 돌아오는 계미년(癸未年)에는 금년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새로운 한해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또한 모든 양계인들이 복된 한해가 되길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